

합평 국향대전 17만명 향기에 '흠뻑'

입장수입 6억·농특산물 현장매출 9억원 성과 다양한 기획작품·수준높은 전시 관람객 호평

'2012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11일 종료됐다. 합평군은 "지난달 26일부터 11일까지 17일간 합평 엑스포 공원에서 개최한 국향대전에 입장객 16만7000여 명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6억여원의 입장 수입과 농·특산물 등 현장판매 매출 9억4000여만 원을 올리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국화향기 그윽한 풍요로운 합평천지'를 주제로 열린 이번 국향대전은 축제장 입구에 높이 8m의 '마법의 성'을 조성하고 소형국화 조형물 17점으로 이동통로를 조성해 관광객을 맞이했다. 또 중앙광장에 국화 30만 본으로 6892㎡ 면적의 국화동산을 조성하고 무지개 동산, 포토존 등 환상적인 국화세계를 연출했다.

합평군 9개 읍·면을 상징하는 9층

꽃탑과 마법의 성, 황소 조형물을 비롯한 다양한 볼거리와 대한민국 국화 동호회 분재 전시 200점 등 수백여 점의 분재 작품도 전시됐다.

형형색색 국화꽃이 만발한 대형 국화 기획작품들과 명품 국화분재 들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관, 옛 추억과 늦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체험 행사장 등에도 행사기간 내내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은 식용국화 따기와 전통 민속놀이, 농산물 수확 등의 체험코너도 시골의 향수를 자극하며 많은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3만3000여㎡에 이르는 억새 단지와 10만㎡의 좁은 잎 해바라기

/합평=황운혁기자 hwang@



목포 새마을부녀회, 헌옷 모아 따뜻한 이웃사랑

목포시 새마을부녀회(회장 김영심)는 최근 목포 유달 경기장에서 자원 재활용 헌옷 경진대회를 개최, 아파트 단지과 동 주민센터의 도움으로 헌옷 22t을 수거했다. 1500만원 상당의 수익금은 각 동 새마을 부녀회로 배분돼 연말 저소득층을 위한 겨울나기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무안 몽탄초교 사물놀이부 '뜨레모아' 여수서 열린 영호남 풍물 교류전 공연

무안군 몽탄초등학교(교장 박영수) 학생들이 사물놀이를 통해 영·호남 문화교류에 앞장서고 있다.

무안 몽탄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사물놀이부 '뜨레모아'는 최근 열린 '제7회 여수 풍물축제'에 참가해 그동안 쌓은 실력을 선보였다. 몽탄초등학교 전교생은 방과 후 활동시간에 악기를 한 가지씩 연습하고 있는데, 이번 공연은 그동안 연습의 성과를 점검하고 실력을 선보이는 뜻 깊은 자리였다.

영·호남 문화 교류와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 열린 이번 여수 풍물축제는 식전 몽탄초등학교 어린이 보컬 '뽀여울 밴드'의 찬조공연을 시작으로 전남 동·서부 지역 청소년 풍물단 교류전, 영·호남 풍물단체 교류전, 서 울경기 전문연희단체 사물 판국 공연 등 순으로 진행됐다.

공연에 참가한 김이슬 학생(2학년)은 "방과후 사물놀이부 활동을 하면서 우리 전통악기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연습해서 다음번 공연은 더 멋지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학부모 박현주씨는 "사물놀이부 활동으로 아이들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고, 많은 사람 앞에서 연주하게 되어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 같아 보기 좋다."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한국 관광 기네스' 본선 진출... 25일까지 국민투표 통해 최종 선정

목포시 평화광장 앞바다에 설치된 '춤추는 바다분수'(사진)가 한국관광공사 주관의 '한국 관광 기네스' 본선에 진출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우리나라 최초·최대·최장 등 주요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인물·사물 등 500여개 대상지를 대상으로 내부 심사를 통해 28개소를 본선 진출 후보자로 선정했다.

본선은 예선을 통과한 28곳 가운데 국민투표를 통해 3개소를 최종 선정한다.

국민투표는 지난 5일부터 25일까지 인터넷(www.knto50.kr)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m.knto50.kr)에 접속해 로그인 없이 참여 가능하고 투표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도 지급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 '춤추는 바다분수'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한국관광 기네스'로 선정돼 대한

민국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관광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한국관광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근로자 권익보호 적극 나선다

목포 고용노동지청 '노동분쟁 해결 지원팀' 운영

목포 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질 높은 고용 노동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동분쟁 해결 지원팀'(이하 분쟁지원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분쟁지원팀은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를 각 1명씩 특별채용해 전담배치하고, 실무교육을 거쳐 다음달 5일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상시 배치된 노동변호사와 공인노무사는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고용노동 행정서비스와 관련한 현안 사항에 대한 법률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임금체불 사건중 근로 감독관의 조사에 앞서 당사자가 사전조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노동분쟁 해결지원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지원하

고, 근로감독관과 함께 취업규칙 작성지원 및 심사, 단체협약 위반 여부 검토 등 사업장의 노무관리 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재준 지청장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소양을 갖춘 노동 변호사와 공인 노무사의 상시 서비스체계를 통해 일자리 현장의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사업장의 노무관리 지도서비스 등 고용노동 행정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 고용노동지청은 신안·진도·해남·완도·장흥·강진·무안·영암·목포 등 1개시 8개 군을 관할하고 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전 북

2020년 초고령사회 진입

노인인구 21.2% 전망... 복지안전망 구축 시급



강 살려 맑은 물 지킨다

순창군 '강살리기 네트워크' 발족

행정과 기업·민간단체·전문가들이 강을 살리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순창군은 12일 군청 영성회의실에서 '강살리기 네트워크' 발족식을 가졌다.(사진)

강살리기 네트워크는 순창군을 비롯한 순창군의회,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물관리단 등 공공기관과 자연보호 순창군협의회, 환경실천연합회 전북본부 순창군지회, 순창군 이장협의회 등 15개 기관이 참여했다.

구성원들은 이날 공동대표와 간사 단체를 선출하고 ▲강살리기 네트워크의 목표와 비전 제언 ▲사업추진 방향 등을 설정했다.

순창군은 이날 발족식에 이어 이달 말에 강살리기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사업계획과 구체적인 활동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공동대표인 김경선 순창 부군수는 "행정과 기업, 민간단체, 전문가의 파트너십에 의한 거버넌스를 통해야만 맑은 강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전북지역 노인 인구 비율이 점차 높아져 오는 2020년에는 '초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전북도와 호남지방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0년 65세 이상 전북도 내 노인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 가운데 21.2%를 차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은 지난 2006년 노인 비율이 14.5%가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한국이 오는 2018년 '고령사회'에,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비교해 속도가 훨씬 빠르다.

현재 도내 고령인구는 30만7000여 명으로 1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군은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한 상태다.

순창군과 임실군은 각각 29.1%, 29.0%로 다른 시·군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다.

아울러 홀로 생활하는 노인(독거 노인)도 7만명을 웃돌아 전체 노인인

구의 24.4에 달했다. 반면 빠른 고령화로 생산 가능인구(16~64세)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지급처럼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하면 2020년에는 생산 가능인구 3.1명이 65세 이상 노인 1명을, 2030년에는 1.9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초고령 사회'에 대비, 경제·사회·복지 등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덕유산 기술인 무주군 안성면 일대에는 요즘 천마(마) 수확이 한창이다. 파종해 2년 후 수확하는 천마는 kg 당 1만~2만원까지 판매되면서 짙짙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다.

/연남뉴스

고창 복분자특수, 지경부 우수특구 선정

사업비 5000만원 지원

고창군 복분자 산업특구가 최근 지식경제부 주관의 2012년 지방자치단체 지역발전특구 평가에서 전국 147개 특구 가운데 우수 특구로 선정돼 지식경제부 장관상과 함께 상 사업비 5000만원을 받는다.

고창군은 그동안 복분자 클러스터 조성과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사업 유지를 통한 광역화, GMP(우수 의약품의 제조·관리 기준)·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복분자 공동 가공센터 구축 등을 활발히 전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창 복분자산업은 지난 2004년 지역특구로 지정 이후 지역경제의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매김했다. 484ha이던 복분자 재배면적이 2011년 1075ha로 확대됐고, 가공업체는 2004년 7개소에서 2011년 현재 58개소로 늘어나 1035억원의 매출효과를 가져왔다.

한편 지역특구 포상은 지식경제부가 규제 특례 완화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특구사업 운영실적을 점검·평가해 상위 우수지역에 대해 시상하는 제도다.

/고창=강철수기자 knews@

단 신

군산경찰, 지역 문화재 안전점검

군산경찰서는 정읍 내장사 대웅전 화재를 계기로 자치단체·소방서와 합동으로 지역 문화재 안전점검에 나섰다. 군산 지역에는 전통 고찰인 은적사 등 6개 전통사찰이 있으며,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인 동국사(東國寺) 등 31개의 문화재가 있다.

이번 점검을 통해 화재예방 대책을 세우고 지역별 의용소방대와 산불감시원 활용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CCTV와 무인경비 등 방화시설을 점검해 문화재 관련 범죄예방과 조치요령 등 비상연락망을 구축한 계획이다. /군산=박근석기자 nogusu@

남원 혼불작은도서관 백일장·다독왕 시상

남원시 사매면 혼불 작은도서관이 개관 4주년을 맞아 최근 주최한 백일장 및 다독왕 시상식에 서 중등부 신하림 학생(용복중)과 초등부 한별이 학생(사매초)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다독자 부문에서는 사매초등학교 오재유 학생이 학생부 1위를 차지했으며, 일반부 조한상씨가 2012년 다독왕으로 뽑혔다.

혼불 작은 도서관 관계자는 "학생들의 자기진작과 동기부여를 위해 모든 공모 학생들에게 도서상품권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정읍 6.25·월남참전 기념탑 이설 준공식

지난 9일 6·25와 월남전 참전 기념탑 이설 준공식 및 기념행사가 최근 정읍시 내장산 워터파크 야외공연장에서 열렸다.

월남참전 기념사업회(회장 김종문)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내외 귀빈과 월남 참전용사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김생기 시장은 축사를 통해 "6·25 및 월남참전 유공 전우회 단체에서 뜻을 한데 모아 기념탑을 이설해 준공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조국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is@

부안군·새마을부안지회 '뉴 새마을만들기'

부안군과 새마을운동 부안군지회가 '선진형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김호수 부안군수와 배의명 새마을운동 부안군지회장, 13개 읍·면 새마을임원 등은 최근 새마을회관 3층 회의실에서 '뉴 새마을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뉴 새마을만들기'는 주민 스스로 참여해 계획하고 실천하는 21세기형 마을 단위 공동체 사업으로 ▲Green ▲Smart ▲Happy를 새마을의 중점과제로 실천하게 된다. /부안=김철수기자 knews@